

정보학 교육의 개혁방안 연구*

최 성 진**

〈차 례〉

- | | |
|--------------------|-----------------------|
| 1. 서 언 | 여하는 교육 |
| 2. 전문직 교육의 일반적 기능 | 5. 정보관리 실무 수행에 유용한 교육 |
| 3. 자료의 수집 | 6. 정보관 운영자가 바라는 교육 |
| 4. 정보관리 전문직의 발전에 기 | 7. 결 론 |

1. 서 언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학과에서 정보학 교육을 시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생산 축적되는 정보자료의 관리를 맡을 전문직(이하 정보관리 전문직이라 한다) 종사자를 양성하는 일에 관여한지도 20년이 되었다. 당시 모두 합해도 열명이 안 되는 소수 정보학자들이 전력을 다하여 추구한 목표와 과제는 새 학문인 정보학의 내용을 가르칠 교과목을 단 한 과목이라도 도서관학 교과과정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었고, 그렇게 한 후에는 서둘러 교수요목을 작성하여 강의를 시작하는 일이었다. 교과목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못 얻은 채 그런 식으로 도서관학 교과과정 속에 한 두 과목씩 자리를 잡은 정보학 교과목들은 그 후 여러 과목으로 늘어나고 교수요목도 상당히 변화되었지만

* 본 논문은 1988년도 재단법인 서봉문화재단 학술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지금까지 한번도 그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검토된 일은 없었다. 그러므로 그동안 여러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친 정보학 교과목들이나 그 내용이 시대적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는지는 아무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이 나라 정보학 교육자들이 시급히 착수하여야 할 연구과제는 현행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바람직한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현행 정보학교육을 사실에 기초하여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려는 것이다.

가.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이 정보관리 전문직의 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의 발달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는가.

나. 정보학 교과목들로 가르친 내용이,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이 정보관리 현장에서 일할 때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가.

다.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이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의 사용자인 정보관리 운영자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로 부합되는가.

라. 위의 평가 결과들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미래의 정보학교육을 위한 어떤 개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가.

요컨대 우리나라 정보학교육의 객관적 실상을 한번 그려 보려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위에 열거된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첫번째 목적 즉 현재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이 정보관리적 활동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의 발달에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학 교육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한편 정보학분야의 주요 학술잡지에 발표된 기사들의 주제를 분석하고, 두 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보학 분야의 연구성과가 어느 정도로 정보학 교과목에 입력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이는 다른 전문직교육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정보학교육의 주요 기능

이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를 미래의 정보관리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함으로써 이 전문직의 활동에 필요한 이론적 및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 두번째 목적 즉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이 도서관학과 학생들이 졸업한 후 정보관리기관에서 일을 맡아 수행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직에 종사하는 졸업자들에게 질문지를 돌려서 그들의 경우를 직접 알아 본다.

다. 세번째 목적은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이 정보관 운영자들의 기대에 어느 정도로 부합되는지를 평가하는 일이다. 이것은 선정된 정보관 운영자들에게 질문지를 돌려서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학 교수세목들을 각각 중요도를 붙여 표시하게 하고, 그 자료를 모아 처리한 결과를 정보학 교육자들이 사용한 강의계획서 내용의 분석결과와 대조 검토하여 평가한다. 정보관 운영자는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의 사용자이므로 정보학교육의 평가에 있어서 그들의 기대와 견해는 중요한 요소이다.

라. 네번째 목적은 바람직한 미래의 정보학교육을 위하여 좋은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위의 세 평가 결과를 전문직 교육의 일반적 원칙들에 비추어 조정한 후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의 대안들로 발전시켜 비교 검토하고, 그 중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여 제시한다.

한 나라의 정보학교육을 평가하려면 당연히 학부와 대학원과정의 교과목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전자만을 다루기로 하고 후자는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한다. 현행 정보학교육에 대한 정보학 교육자 자신과 재학생의 평가도 중요하나 그것도 시간과 그 밖의 제한요소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지난 20년간 많은 나라에서 도서관학 교과과정 속에 포함된 정보학 교과목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도서관학교육에 있어서 정보학의 요소가 이렇게 증가되어 온 과정을 추적 조사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그러한 연구중 초기의 것으로는 이사벨라(Isabella, 1964), 리스(Rees, 1967), 브래큰과 쉐링(Bracken ; Shilling, 1968)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많은 정

보학자들의 관심을 모은 연구는 1968 년과 1972 년에 행한 벨저 등(Belzer et al, 1971 ; Belzer et al, 1975)의 두 조사연구이다. 1968 년에 행한 그들의 첫번째 조사연구는 미국 대학에 설치된 모든 도서관학 석사과정에 질문지를 보내어 그 과정들의 교과과정 속에 포함된 정보학 교과목들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1971 년에 발표되었다. 1972 년에 행하고 1975 년에 발표된 그들의 두번째 연구도 유사한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이 모두 조사 분석되었다. 1972 년 조사에서는 질문지를 받은 138 개 대학 중 71 개 대학이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35 개는 1968 년 조사에도 응답한 대학이었다. 벨저 등은 응답지에 표시된 정보학교과목의 내용을 분석하고 미국의 도서관학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가르치는 정보학 주제군을 세 과정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 후에도 포스딕(Fosdick, 1978), 테이그(Tague, 1979) 등에 의하여 도서관학에서 가르치는 정보학의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어졌다. 포스딕의 연구는 54 개의 미국 도서관학 대학원 요람에 나타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대학원들에서 가르치는 정보학의 내용이 (1) 도서관 자동화, (2) 정보의 축적과 검색, (3) 시스템 분석법, (4) 전산망, (5) 프로그램 작성법의 다섯 범주로 되어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연구는 소수의 대학원만이 프로그램 작성법을 가르치고 있으나 도서관 자동화, 정보의 축적과 검색은 거의 모든 대학원에서 가르친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1982 년에 포스딕은 비슷한 조사를 다시 행하여 첫번째 조사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 보았다(Fosdick, 1,984). 두번째 조사 결과는 그동안 정보학교과목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정보검색과 프로그램 작성법 과목이 가장 많이 늘어났음을 보여 준다. 많은 도서관학 교과과정 속에 마이크로컴퓨터 과목이 포함된 사실도 밝히고 있다.

끝으로 테이그의 연구를 간단히 살펴 본다. 이것은 캐나다의 7 개 도서관학 대학원 요람을 조사하고 그 대학원장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필요한 보충자료를 모아서 행한 연구이다. 테이그는 이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7 개 대학원이 모두 정보학 교과목을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에서 정보학

과 도서관학을 분명하게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테이그도 이 연구에서 도서관학 교과과정 속에 포함된 정보학 교과목들의 여덟 범주를 제시하지만 그것들은 벨저와 포스틱의 그것들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2. 전문직 교육의 일반적 기능

정보관리 전문직의 교육은 넓게 보면 각 사회에서 행하는 여러 전문직 교육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정보학 교육의 평가는 전문직 교육의 일반적 기능들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된 전문직 교육의 몇가지 일반적 기능에 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논의된 전문직 교육의 기능들은 이어지는 장들에서 우리나라 정보학 교육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2.1. 전문직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전문직 교육에는 세가지 기본적 기능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해당 전문직에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그 전문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그런 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교육의 내용, 범위 및 수준을 결정하며, 둘째, 그 전문직에서 일할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셋째, 자격을 가진 인력을 그 전문직에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그 전문직의 목표를 정의하고, 미래의 필요를 적시에 파악하여 대비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전문직의 경우 새로운 종사자들은 해당 전문직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양성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대의 종사자들을 선발하고 훈련하여 각 전문직에 들여 보내는 전문직 교육의 질적 수준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전문직이 맡은 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문직 교육의 질은 물론 일차적으로 교육자의 능력과 성의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그 내용, 범위,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문직 종사자

모두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육자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가진 새로운 일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전문직 교육의 기능은 해당 분야의 고전적 이론과 기술은 물론 최신 이론과 기술을 같이 포함하는 교과과정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수행된다. 전문직 교육기관은 해당 전문직과 관련된 모든 기존 지식을 보존함은 물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여 양자를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전문직의 사회적 봉사 능력을 신장시킨다. 새로운 지식은 연구활동을 통하여 생산되며 이 연구활동은 현장 실무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전문직 교육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교육자들은 연구개발 성과를 지체없이 학생들에게 알림으로써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문직 활동의 내용과 방법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많은 경우 기초연구는 주로 전문직 교육기관에서 수행된다. 그렇게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불완전한 현행 기법들이 연구성으로 어떻게 개선 또는 완성되어 가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다.

각 전문직의 사회적 봉사가 충실해지고 향상되려면 연구개발 활동으로 해당 분야에 생산 축적된 모든 지식과 기술이 교육을 통하여 종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수되어야 한다. 전문직 교육의 첫째 가는 존재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 훌륭한 연구성으로 어느 전문직의 이론과 기술이 발달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것이 단지 학술발표회의 토론이나 학술잡지의 인쇄면에만 존재한다면 아무런 사회적 가치도 없는 것이다. 흔히 전문직의 이론과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진 이론과 기술 수준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이론과 기술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전수받아 그것을 활용하여 사회에 봉사할 때 비로소 실제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의 전달기능을 통하여 실현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어느 전문직 분야의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로 그 전문직 교육기관의 교과목 내용에 입력되는지를 측정하여 그 전문직의 교육을 평가할 수 있다.

2.2. 실무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

맥글로틀린이 말한대로 『전문직 교육기관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친다면 그것이 할 일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없다. 지식이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문직 교육기관은 그 졸업자들이 해당 전문직에 관한 지식을 많이 배우고 동시에 그 전문직에서 행하는 일상 실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익히고 학교를 떠나게 하여야 한다』(McGlothlin, 1961). 어떤 전문직 교육을 시작하는데 있어서도 실습의 필요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일상 실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다루는 교과목들이 어느 전문직 교과과정 속에도 많이 들어 있었다』(McGrath, 1962). 지금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전문직 교육의 기본적 과업이 그 졸업자들이 해당 전문직의 일상 실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마련해 주는 것인 이상 어느 시대의 전문직 교육도 실습을 외면할 수 없다. 실습은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무기술에 연결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보통 경험자가 지도하는 현장실습이나 교육자가 강의실이나 실습실에서 행하는 시범 등으로 이루어진다.

전문직 교육의 주요 기능이 학생들에게 해당 전문직의 사회적 사명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실무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지만 그것이 대학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질 때에는 대학의 일반적 속성으로 여러 기술과 절차의 근거를 이루는 이론을 전수하는 쪽에 치중되기 쉽다. 실무 수행에 사용되는 특정 기술들이 논의되는 일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으로부터 여러가지 기술이 개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주목적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실무기술이 아닌 이론의 교육에 치중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비전문직 교육에 대한 전문직 교육의 특징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론 위주의 수업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의 구체적 예로써 설명되지 않는다면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응용할 능력이 없는 졸업자들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전문직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이론과 기술 요소의 적절한 균형은 진정으로 유능한 현장 실무자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긴요한 것이다. 따라서 실무 수행에 유용

한 기술적 요소가 어느 정도로 교과목 내용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전문직 교육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2.3. 사용자가 바라는 교육

대부분의 전문직 분야에서 새 세대의 종사자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한 교육자와 사용자의 견해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자는 실무기술의 근거가 되는 이론과 원리들을 강조하고, 한편 사용자들은 일상 실무에 사용되는 특정 기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물의 원리를 완전히 이해하면 전문직의 실무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가지 유사한 상황을 모두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은 교육자들은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들이 특정기술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이론과 원리의 구체적 응용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일부 교육자들은 강의실과 사용자의 기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내용의 일부를 특정 사용자들의 구체적 요구에 맞추어서 가르치는 일이 있다. 그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교육내용의 범위를 제한하고 그 배운 일 밖에 할 수 없는 졸업자를 배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은 일반 직업훈련이지 전문직 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전문직 교육이 실무의 이론과 원리를 주로 가르치고, 새로 받아 들인 졸업자들에게 해당 정보관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절차를 소개하는 일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사용자들은 교육자들이 적어도 전문직 현장의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항상 추적하고 그 중의 많은 예를 학생들에게 소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Conant, 1980). 어떻게 보면 전문직 교육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교육자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 내용 속에 사용자가 바라는 정보학의 요소가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전문직 교육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3. 자료의 수집

앞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전문적 교육의 일반적 기능 몇 가지를 살펴보고 각 전문적의 교육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제시되었다. 이 일반적 기준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학 교육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발전시켜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정보학분야의 연구성과가 어느 정도로 대학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과목 내용에 입력되는지 측정한다.

나. 정보관리 전문적의 일상 실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가 어느 정도로 정보학 교과목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측정한다.

다. 정보학 교과목 내용에 사용자가 포함시켜야 한다고 믿는 정보학 요소가 어느 정도로 반영되어 있는지 측정한다.

위의 세가지 측정을 행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과목 담당 교수들, 정보관리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도서관학과 학부과정 졸업자들 및 정보관리 분야의 중급 및 상급 관리자들에게 질문지를 우송하여 그 응답지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정보학 분야의 세계 주요 학술잡지에 발표된 기사의 주제를 분석하여 최근에 이루어진 정보학 분야 연구성과의 범위를 확인하였다. 질문지의 우송과 응답지의 회수는 1988년 7월 20일부터 동년 9월 30일까지 2개월 여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3.1. 정보학 교육자에게 보낸 질문지

29개 4년제 대학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과목 담당 교수들에게 부록 1에 표시된 질문지를 우송하고 그중 19개 대학(65.5%)으로부터 응답지를 받았다. 이 질문지의 주요 목적은 각 대학이 어떤 정보학 교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 교과목들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 교과목들을 언제부터 가르치고 있으며, 필요한 실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 도서관학 교과목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정보학 교육자들의 응답내용을 처리하

여 알아 보려는 것이다. 각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을 보여 주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지난 3년간 학생들에게 배포된 모든 정보학 교과목 강의계획표를 응답지에 붙여서 보내 주도록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따라 19개의 응답 대학 중 16개 대학(84.2%)에서 강의계획표를 보내왔다. 이 강의계획표에 따라 각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보학의 내용이 정보학 분야에 축적된 지식 전체의 어느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최근 10년간(1977~86) 정보학 분야에서 연구 또는 개발된 주제를 조사 정리하여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다(부록 2 참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제12권(1977)에서 제21권(1986)까지의 목차면
- (2) 「ASLIB Proceedings」 제29권(1977)에서 제38권(1986)까지의 주제 색인
- (3)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제28권(1977)에서 제37권(1986)까지의 주제 색인

위의 세 자료를 통하여 정보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연구 성과를 모두 조사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 지금까지 연구 개발되어 정보학의 지식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본다. 정보학의 주제를 분류하는데 사용되는 통일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조사된 연구주제들을 제시하는 일은 단순하지 않다. 그동안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과목 내용을 분석한 주요 연구들도 모두 독자적 주제 범주를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예컨대 벨저 등(Belzer et al, 1975)은 11개, 그랜트와 메인(Grant ; Main, 1986)은 58개, 보코와 골드스타인(Borko ; Goldstein, 1987)은 75개의 주제 범주를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록 2에 표시된 정보학 분야의 연구 개발 주제표를 작성할 때 전기한 3개 자료에 나타난 주제들을 그대로 모두 자모순에 따라 열거하고 다만 동의어만을 추려서 제외시켰다. 수집된 주제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체크리스트에 열거하고 싶은 충동도 느꼈으나 분류과정에 연구자의

독단이 개입되어 독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보아 그런 시도를 피하였다. 열거된 주제는 원칙적으로 주제명의 자모순으로 배열하였으나 이 체크리스트가 정보관 관리자들에게 보낸 질문지에도 붙여졌으므로 그 질문지의 응답자들에게 편리할 것이라 믿어지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자모순을 무시하거나 도치기입으로 관련 주제들을 한곳에 모으려고 힘썼다.

예 : 출판, 전자식

출판시스템, 일차문헌

커뮤니케이션

간접경로

직접경로

일반모형

탐색, 온라인

만족도

탐색 유형

탐색, 분야별 온라인 (예 : 화학분야의 온라인 탐색)

3.2. 정보관리 실무자에게 보낸 질문지

정보학 교육자들에게 보낸 질문지 속에 1983년에서 1985년까지의 3년 사이에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정보관리기관에 들어가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 3명의 이름과 우편주소를 적어서 보내 주도록 요청하였다. 13개 대학에서 알려 온 31명의 정보관리 실무자에게 부록 3에 표시된 질문지를 우송하고 그 중 21명(67.7%)으로부터 응답지를 받았다. 이 질문지의 주요 목적은 최근 각 대학에서 가르친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과 범위가 정보관리 실무자를 맡게된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하였는지를 알아 보려는 것이다. 1983년에서 1985년 사이의 졸업자들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졸업 후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들이 대학에서 받은 전문직 교육을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그들이 현장에서 행하는 정보관리 실무와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보학 내용 간의 관련 정도를 말할 수 있

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3.3 정보관 운영자에게 보낸 질문지

36개 주요 산업체, 연구소, 은행, 병원 및 방송국에 설치된 정보관리실, 기술정보실, 도서실 등 정보관리 부서의 중급 및 상급 관리자 45명에게 부록 4에 표시된 질문지를 우송하고 그 중 21개 기관의 27명(60.6%)으로부터 응답지를 받았다(부록 5 참조). 이 질문지의 목적은 정보관 운영자들이 바라는 정보학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응답지에 표시된 자료의 처리 결과는 정보학 교육자들이 사용한 강의계획서 내용의 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될 것이므로 자료 처리시의 편의를 고려하여 후자의 처리에 사용될 부록 2의 정보학분야 연구 개발 주제 체크리스트가 이 질문지에 첨부되었다. 다만 이 질문지에는 그 체크리스트의 각 문항 앞에 응답자의 판단에 따라 중요도를 표시할 4개의 칸이 더해졌다. 이 질문지를 통하여 정보관 운영자들이 바라는 정보학 교육의 내용을 조사함에 있어서 선정된 조사 대상자들은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람들로 국한되었으며, 체크리스트에 열거된 정보학 교과목들의 각 교수요목에는 설명문이 붙여지지 않았으므로 응답자에게 생소한 어휘가 오해되어 응답 내용이 부분적으로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검토함에 있어서 아마 연구 진행상의 이 두가지 제한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전문직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정보학 교육이 단지 현재 정보관리전문직에서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사용되는 기술을 전수하는 정도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보학 교육은 정보관리 전문직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야 하며,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정보학 교육의 내용 속에 정보학 분야의 연구 개발 성과가 신속하고 완전하게 입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 장에서는 첫째, 정보

관리 전문직의 발전에 있어서 도서관학과를 통한 정보학 교육이 어떻게 공헌하여야 하는지를 일반적 관점에서 살펴 보고, 둘째, 우리나라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 속에 어떤 정보학 교과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고, 셋째, 그러한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 속에 정보학 분야의 최근 연구 개발 성과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 보려고 한다.

4.1 정보관리 전문직의 발전에 있어서 도서관학과의 기여

대학에 설치된 도서관학과는 일종의 범용 학과이다. 즉 그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도서관이나 정보관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느 종류의 도서관이나 정보관의 어떤 부문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준다. 사범대학에 설치된 도서관 교육학과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학의 도서관학과가 어느 한 종류의 도서관이나 정보관에만 적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히 드물다. 그것은 많은 사서와 정보관리자들이 그들의 평생 경력 중 여러 종류의 도서관과 정보관을 옮겨 다니며 일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도서관학과가 그 존재, 특히 대학 학과로서의 존재를 정당화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단지 학생들에게 현재 어느 도서관과 정보관에서 하는 일들의 절차와 기술을 가르치는 곳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것은 옛날 대학에서 도서관학 교육이 행해지기 전에 단기 강습소에서 하던 일이다. 훌륭한 도서관이나 정보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조차 가르치지 못하는 뒤떨어진 도서관학과가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도서관학과가 도서관전문직이나 정보관리전문직을 뒤따라 가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넣어 주고 기존 지식과 기술의 약점들을 계속 보완함으로써 발전의 견인역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도서관학과의 주요 기능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첫째, 이론적으로는 도서관이 어떤 일을 왜 하여야 하는지 가르치고, 둘째, 실제로 도서관이 현재 어떤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개발함으로써 내일의 도서관 전문직과 정보관리 전문직 종사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오

늘날 도서관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으로부터 40년 후 곧 2030년대까지 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교육의 역할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서관학과는 적어도 그 기간의 반까지만이라도 졸업자들이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도서관학과가 과연 대학의 테두리 안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학과 졸업자가 모두 정보관리직에 들어가거나 자동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일들을 맡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그렇게 될 것이며 또 그 수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스템분석과 설계 기법을 익힌 졸업자, 전산기와 원거리통신 기계의 장점과 단점을 아는 졸업자, 전산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을 만큼 프로그래밍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진 졸업자가 필요하다. 현재 도서관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마 자동시스템을 설계하고 설치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는 일이 없을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들도 장차 자동화된 업무환경 속에서 일하게 되리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곧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아마 자동시스템의 관리직을 맡을지도 모른다. 결국 모든 도서관학과 학생들은 전산시스템의 일반적 기능과 능력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현재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첨단기술이 가져올 것이라 믿어지는 여러가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사서와 정보관리자들이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도서관학과의 교육적 노력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논의된 세가지 상황은 모두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 속에 정보학 분야의 연구 개발성고가 효과적이며 능률적으로 입력될 필요를 강조하는 것이다.

4.2 도서관학과 교과과정 속에 포함된 정보학 교과목

대학 도서관학과 학부과정의 정보학 교육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29개

대학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육자들에게 부록 1의 질문지를 우송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그 중 19개 대학에서만 응답지를 받았다(3.1 참조).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정보학 교육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로 이 19개 대학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육을 평가하는 일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 실제 조사대상이 된 19개 도서관학과 중 18개 학과에서 모두 73개의 정보학 교과목이 1년에 한번 또는 2년에 한번씩 교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표 1 참조). 나머지 1개 학과는 아직 독립된 정보학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지 않으며 교과과정 속에도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보학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18개 학과 중 4~5개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과가 14개(77.8%)로 가장 많고, 1~3개의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과는 3개(16.7%), 6개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과는 1개(5.6%) 뿐이다. 우리나라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는 평균 정보학 교과목 수는 4.1개이다. 이것은 10개 아시아국가의 25개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는 평균 정보학 교과목 수 3.9개(Chaudhry, 1988)와 거의 같으나 예컨대 일본 게이오대학 도서관·정보학과 학부과정의 교과과정 속에 포함된 19개의 정보학 교과목(慶應義塾大學.....1986)에 비하면 훨씬 적다.

〈표 1〉 교과과정 속에 포함되어 과거 2년간 실제로 개설된 정보학 교과목

정보학교과목	개 설 한 대 학														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더	리	머
정 보 점 색	○	○	○	○	○	○	○	○	○	○	○	○	○	○	○	○	○	○	○	18	94.7
도서관자동화	○	○	○	○	○	○	○	○	○	○	○	○	○	○	○	○	○	○	○	17	89.5
정보학개론	○	○	○	○	○	○	○	○	○	○	○	○	○	○	○	○	○	○	○	15	78.9
전산학개론	○							○			○	○	○							5	26.3
정보시스템									○			○		○	○					4	21.1
자동정보처리법			○			○			○									○		4	21.1
색인 및 초록법		○		○	○	○														4	21.1
정보처리법		○									○						○			3	15.8
정보와 사회	○			○																2	10.5
사무 자료 관리								○												1	5.5
계	5	5	4	5	4	4	4	1	5	4	3	4	6	3	4	4	4	4	0	73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검색」, 「도서관자동화」, 「정보학개론」의 세 정보학 교과목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서관학과(78.9%)에서 교수되고 있다. 「전산학개론」, 「자동정보처리법」 등 전산학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학과는 9개이며, 「사무자료관리」를 가르치는 학과도 1개 있다. 이러한 교과목들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13년 동안에 각 학과의 교과과정 속에 포함되었으며, 그 중 9개 학과(50.0%)의 정보학 교과목은 지난 5년 동안에 신설되거나 바뀐 것이다.

〈표 2〉 정보학 교과목의 개설과 관련된 교과과정 개정이 최종적으로 있었던 해

개 정 년	대 학 수	수 계	
		수	%
1988			
87	2	2	11.1
86	1	3	16.7
85	3	6	33.3
84	3	9	50.0
83			
82	1	10	55.6
81	1	11	61.1
80	5	16	88.9
79			
78			
77	1	17	94.4
76	1	18	100.0
계	18	18	100.0

하버드 윌럼즈(Havard-Williams, 1976)를 비롯한 일부 정보학 교육자들은 정보학의 이론과 기술을 별도의 교과목으로서가 아니라 관련된 전통적 도서관학 교과목들의 내용 속에 그것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여 가르침으로써 교육의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응답지에 나타난 자료를 처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19개 조사대상 학과 중 7개 학과(36.8%)에서 정보학의

이론과 기술의 일부를 1~2개의 도서관학 교과목 내용 속에 통합하여 가르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렇게 도서관학과 정보학의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교과목은 「도서관학개론」 과목이며 「비도서자료」와 「도서관과 사회」 과목은 각각 1개 대학에서 통합 교과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 3〉 정보학의 내용을 포함시켜 가르치는 도서관학 교과목

교 과 목	대 학								순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계	
도 서 관 학 개 론			○		○	○		3	1
자 료 조 직 법	○	○						2	2
참 고 봉 사				○			○	2	2
인문·사회·자연과학서지	○			○				2	2
비 도서 자 료		○						1	3
도 서 관 과 사 회					○			1	3
계	2	2	1	2	2	1	1	11	

4.3 정보학분야의 연구성과와 정보학 교과목의 내용

여기서는 정보학분야의 연구성과가 어느 정도로 대학 도서관학과와 정보학 교과목 내용에 입력되는지를 측정하고 논의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10년간(1977~86)의 정보학분야 연구 개발 주제를 이 분야의 세계 주요 학술잡지(3.1 참조)에서 조사 정리하여 마련한 부록 2의 체크리스트에 16개 도서관학과에서 보내 온 정보학 교과목 강의계획표 내용 분석결과를 대조하였다. 그렇게 하여 얻은 결과는 부록 6에 표시된 바와 같다. 부록 6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부록6의 결과를 얻는 과정에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는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은 보통 해당 학기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강의계획표에 모두 나타나 있다고 본다. 둘째, 강의계획표에 해당 교과목의 교재와 참고도서로 열거된 책들이 강의 일시별로 다루어질 범위가 구체적으

〈표 4〉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는 정보학 주제들

번 호	주 제	가 르 치 는 학 과	
		수	%
1	계량서지학	15	93.8
8	기 호 학	14	87.5
13	데이터베이스	16	100.0
15	역 사	15	93.8
16	산업분야에서의 이용	4	25.0
17	작성법	12	75.0
18	종 류	12	75.0
20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12	75.0
21	데이터베이스, 본문정보	1	6.3
22	데이터베이스, 서지	16	100.0
23	작성법	4	25.0
28	데이터베이스, 수치	2	12.5
29	데이터베이스, 주제별	12	75.0
30	데이터통신	1	6.3
31	데이터통신망	1	6.3
34	디소러스	16	100.0
35	디스크립터	16	100.0
36	마이크로컴퓨터	16	100.0
37	소프트웨어	2	12.5
38	도서관 이용	12	75.0
41	메들라인(MEDLINE)	15	93.8
42	문헌 속의 논문 분포	15	93.8
43	문헌검색	15	93.8
44	연관색인법	13	81.3
45	클러스터링	5	31.3
47	문헌분류	15	93.8
48	문헌의 가치수명	14	87.5
50	분 류 법	11	68.8
51	주요 분류법의 특징	10	62.5
52	자 동 화	5	31.3
53	분류법, 국제십진	16	100.0
54	분류법, 체계	16	100.0
55	분류법, 파셋	15	93.8

번호	주 제	가 르 치 는 학 과	
		수	%
56	브랫포드의 분산법칙	16	100.0
57	비공식 대화집단	15	93.8
58	비디오텍스	12	75.0
60	사이버네틱스	13	81.3
62	색 인 법	16	100.0
63	수목범위	13	81.3
64	자 동 화	5	31.3
65	색인법, 순열	16	100.0
66	색인법, 용어열	14	87.5
67	색인법, 조합	16	100.0
68	색 인 어	16	100.0
69	자연어의 제한점	14	87.5
70	통계방식에 의한 색인어의 선정	5	31.3
74	시스템 설계	13	81.3
75	기 법	13	81.3
76	원 칩	13	81.3
77	시스템, 온라인	16	100.0
78	기술적 측면	13	81.3
79	봉사적 측면	13	81.3
80	이용자 교육	5	31.3
81	시스템이론	16	100.0
83	어휘 통제법	15	93.8
85	에스·디·아이(SDI)	16	100.0
86	엔트로피와 정보	13	81.3
93	온라인 목록	16	100.0
94	이용습관	13	81.3
95	장점과 단점	16	100.0
96	이용자관심 주제(user-profile)	16	100.0
97	이용집단 조사	15	93.8
107	인용문헌	15	93.8
108	동 기	13	81.3
109	분석법	13	81.3
110	연구전선	13	81.3
112	인용문헌색인	16	100.0

번 호	주 제	가 르 치 는 학 과	
		수	%
113	인용문헌색인, 과학분야	15	93.8
114	인용문헌서지법	16	100.0
115	일차문헌과 이차문헌	15	93.8
116	자동발해법	13	81.3
118	자동언어처리법	10	62.5
119	자연어처리법	14	87.5
121	전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2	12.5
122	전산기에 의한 정보축적 기법	10	62.5
123	전산기와의 대화	10	62.5
126	전산프로그램 작성법	10	62.5
130	정기간행물	16	100.0
131	정 보	16	100.0
132	기호화	12	75.0
133	배 포	13	81.3
134	수 집	13	81.3
136	유통경로	14	87.5
137	이용 유형	2	12.5
138	자원으로서	4	25.0
140	조 직	16	100.0
141	지식과 정보	13	81.3
142	축 적	16	100.0
143	커뮤니케이션	12	75.0
145	평가법	4	25.0
146	정보, 과학기술	13	81.3
147	정보, 의미	13	81.3
149	정보검색	16	100.0
152	검색기준	16	100.0
153	검색어	16	100.0
154	기본이론	15	93.8
155	기호화	15	93.8
156	데이터 입력	16	100.0
157	마이크로컴퓨터의 이용	13	81.3
158	마이크로폼 자료의 검색	16	100.0
159	미니컴퓨터의 이용	12	75.0

번호	주 제	가 르 치 는 학 과	
		수	%
160	불리언 논리	16	100.0
161	비디오디스크	12	75.0
163	역 사	16	100.0
164	역 할부호	16	100.0
165	연결부호	15	93.8
166	온라인 검색	16	100.0
168	자동화	14	87.5
169	자연어에 의한 검색	2	12.5
170	재현틀	16	100.0
171	정확틀	16	100.0
172	질문 작성법	15	93.8
174	평가법	12	75.0
175	표시장치	12	75.0
176	확률이론의 적용	5	31.3
177	정보검색시스템	16	100.0
178	구 성	7	43.8
179	기 능	14	87.5
180	메들라즈(MEDLARS)	15	93.8
181	모 형	9	56.3
183	유니덱 시스템	14	87.5
184	이용자의 적용	4	25.0
185	자연어	7	43.8
186	저자명 시스템	13	81.3
187	주제명 시스템	14	87.5
188	평가법	14	87.5
189	환류(feedback)	14	87.5
190	효율측정법	14	87.5
191	정보검색시스템, 온라인	16	100.0
192	정보공학	1	6.3
193	정보관	16	100.0
194	개 념	16	100.0
195	봉사의 내용과 범위	16	100.0
197	정보관리	13	81.3
198	국제조직	15	93.8

번 호	주 제	가 르 치 는 학 과	
		수	%
200	정보요구의 조사	15	93.8
201	정보요구의 종류	13	81.3
202	이용집단	15	93.8
204	정보봉사	7	43.8
207	원가분석법	2	12.5
208	정보봉사망, 세계적으로 주요	16	100.0
209	정보분석관	14	87.5
210	정보사회	5	31.3
212	정보속보봉사	15	93.8
213	정보시스템	16	100.0
214	구 성	14	87.5
215	분 석	16	100.0
216	서비스	14	87.5
217	설 계	16	100.0
220	인간적 요소	13	81.3
222	질의·응답시스템	13	81.3
223	통 계	13	81.3
224	평가법	14	87.5
226	정보시스템, 국가별	14	87.5
230	정보와 사회	13	81.3
231	정보요구	16	100.0
233	정보이론	13	81.3
234	정보자원 공용을 위한 네트워크	16	100.0
235	정보전문직	13	81.3
243	정보처리용 프로그램 언어	9	56.3
244	정보학	15	93.8
245	도서관학과 정보관	14	87.5
246	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	14	87.5
247	미래의 정보학	5	31.3
248	원리와 이론	14	87.5
249	역 사	13	81.3
250	전문직의 지적 기반으로서	13	81.3
251	전산기와 정보학	13	81.3
252	종이를 쓰지 않는 사회	5	31.3

번 호	주 제	가 르 치 는 학 과	
		수	%
253	주제분석법	15	93.8
254	지프의 법칙 (Zipf's Law)	14	87.5
255	초 록	16	100.0
257	분야별(예 : 화학초록)고찰	13	81.3
259	이용습관	15	93.8
260	작성법	15	93.8
261	종 류	15	93.8
263	초록법, 자동	5	31.3
264	최신정보주지	16	100.0
267	전산기의 이용	13	81.3
268	최신정보주지 매체	9	56.3
269	효과 평가법	13	81.3
270	축차간행물	16	100.0
271	출 판	14	87.5
276	출판시스템, 일차문헌	1	6.3
277	커뮤니케이션	16	100.0
278	간접경로	16	100.0
279	직접경로	16	100.0
280	일반모형	15	93.8
282	학술적 커뮤니케이션	14	87.5
284	키워드 색인법	15	93.8
285	탐색기법	15	93.8
286	탐색모형, 불리언 탐색모형이 아닌	10	62.5
287	탐색, 온라인	14	87.5
290	이용자	9	56.3
294	탐색결과의 정확률	6	27.5
295	탐색습관	1	6.3
296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	37.5
297	탐색유형	14	87.5
300	화일 (file)	16	100.0
301	구 조	16	100.0
302	유지법	9	56.3
303	작성법	11	68.8

〈표 5〉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정보학 주제들

번호	주 제	번호	주 제
2	광디스크	49	미래의 인쇄자료
3	기술현황	59	사무실 자동화
4	미래의 전망	61	산업후사회
5	정보축적매체로서	71	서지작성 규격
6	기계가독형 사전	72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7	기술이전	73	시스템 기술
9	데이터 보호	82	시·디·롬(CD-ROM)
10	입법의 필요성	84	언어처리의 자동화
11	정보봉사에 미치는 영향	87	원거리 통신
12	전산실 직원이 유의할 일 (데이터베이스)	88	국가정책
14	규격	89	기술적 측면
19	평가법 (데이터베이스, 서지)	90	시설
24	주제별	91	원거리자료처리 네트워크
25	지프의 모형	92	미래의 이용전망
26	클러스터 분석	98	인간의 정보처리 습관
27	판매 (데이터통신망)	99	인공지능
32	설치계획	100	기술적 측면
33	정보봉사에서 의 이용	101	미래의 이용 전망
39	마이크로프로세서	102	엑스퍼트 시스템
40	메뉴선택시스템 (문헌검색)	103	자연어 처리법
46	학제적 주제	104	잠재적 활용분야
		105	질의·응답시스템
		106	텍스트 구성법 (인용문헌)
		111	클러스터링

번호	주	제	번호	주	제
117	자동번역법		206	공·사립기관간의 협조	
120	장서관리에 있어서 계량서지학의 응용		211	정보산업	
124	전산기 증개에 의한 개인간 대화			(정보시스템)	
125	전산기 증개에 의한 기관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218	시험	
127	전자식 문헌 전송법		219	「오·알」의 이용	
128	전자식 상호대출		221	인공지능의 이용	
129	전자식 학술잡지		225	필요성	
	(정보)		227	정보시스템, 분야별	
135	유용성		228	정보시스템, 서지	
139	전송모형		229	정보시스템, 주제별	
144	판매		232	정보유통과정, 국가간	
148	정보, 주제별(예 : 환경정보)		236	정보정책	
	(정보검색)		237	개발 도상국에서의 문제	
150	간접적 방법		238	산업분야에서의 문제	
151	고프먼의 검색기법		239	정보정책, 과학기술	
162	시험		240	정보정책, 국가별	
167	의사결정 모형		241	정보정책, 국제	
173	최대 엔트로피 원리		242	정보처리 규격	
182	시뮬레이션			(초록)	
	(정보관)		256	미래의 초록	
196	전산기의 이용		258	수록범위	
	(정보관리)		262	판매	
199	미래의 정보관리			(최신 정보 주지)	
203	정보관리, 국가별		265	비용대 이익 분석	
	정보관리		266	소프트웨어 패키지	
205	개발도상국에서의 문제			(출판)	

번호	주	번호	주
272	역사	289	심리적 측면
273	전산기의 이용	291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274	출판, 재래식	292	정보의 손실
275	출판, 전자식	293	클러스터 분석
	(커뮤니케이션)	298	탐색, 분야별 온라인
281	학술잡지기사가 이루는 네트워크	299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책
283	커뮤니케이션, 분야별		(화일)
	(탐색, 온라인)	304	평가법
288	만족도		

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책들의 내용이 모두 학생들에게 전달된다고 본다. 실제로는 그 책들의 일부만이 강의실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그것을 확인하기 어렵고 또 어느 책이 교재나 참고도서로 지정되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노출되어 성실한 학생들은 비록 강의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도 다 읽어 이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4와 표 5는 부록 6을 정리하여 작성된 것이다. 표 4와 표 5에서 주제명 앞의 번호는 긴 주제명의 뒷부분이 절단된 경우가 있어 완전한 주제명을 찾아 보기 편리하도록 부록 6의 일련번호를 그대로 붙인 것이다. 부록 6, 표 4, 표 5를 같이 놓고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정보학분야에서 연구 개발된 304개의 주제(부록 6 참조)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느 한 도서관학과에서라도 가르치는 주제는 모두 202개(66.4%)이다. 이는 나머지 102개(33.6%)의 주제 곧 정보학분야에서 연구 개발된 주제 전체의 약 3분의 1이 국내 어느 도서관학과에서도 교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부록 6 참조).

(2) 강의계획서를 보내 온 16개 조사대상 학과 중 정보학을 가장 많이 가

르치는 학과는 183개(60.2%), 가장 적게 가르치는 학과는 111개(36.5%)의 주제를 가르친다. 즉 우리나라 도서관학과는 평균 140개(46.1%)의 정보학 주제를 가르친다(부록 6 참조).

(3) 표 4는 조사대상 학과들이 가르치는 정보학의 내용이 대체로 유사함을 보여준다. 즉 16개 학과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주제의 수가 53개(26.2%)이며, 조사대상 학과의 75%에 해당하는 12개 학과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주제의 수는 157개(77.7%)이다. 물론 정보학 지식의 근간을 이루는 주제들에 대한 교육이 중복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렇게 중복되는 주제들이 모든 학과에서 가르치는 정보학 내용의 대부분을 이룬다면 학과별 특성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모든 학과가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하고 결과적으로 유사한 자질을 가진 정보관리자를 배출한다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4) 표 5에 열거된 정보학 주제들은 우리나라의 어느 도서관학과에서도 교수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곧 이 주제들의 연구성과가 적어도 학교교육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정보관리전문직의 실무활동에 반영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이 주제들의 연구성과에서 얻을 혜택이 우리 사회에 들어 오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이 주제들 가운데 현재와 미래에 우리나라 정보관리 전문직의 이론적 기술적 향상에 기여할 가치있는 요소들은 전혀 없으며, 따라서 미래의 정보관리자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보학 교육자들은 표 5에 열거된 주제들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위 (3)과 (4)의 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각 도서관학과가 정보학 교과목에 배정된 제한된 시간적 조건하에서도 중복된 주제들에 대한 교수는 정보학의 기본적 원리와 기술로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학과별로 교육내용을 최대한 특성화함으로써 정보학분야의 모든 연구성과들이 적어도 국내 어느 도서관 학과에서든 교수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정보관리 실무 수행에 유용한 교육

대학 도서관학과의 중요한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는 유능한 정보관리자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것이며, 이것은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이, 정보관리전문직 실무자들이 일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질과 일치할 때에만 성취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학과의 교과과정이 이론에 치중되고 정보관리 실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이 소홀히 된다면 그 교육목적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도서관학과의 졸업증서는 정보관리 전문직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서와 같은 것이므로 정보학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졸업 즉시 정보관리 실무를 유능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론과 함께 기술도 충분히 가르칠 책임이 있다. 도서관학과는 또한 정보관리 현장의 협조를 얻어 정보관리직의 실무 수행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끊임 없이 시험하여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책임도 있다.

1972년에 발표된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의 「실업계 대학 교과과정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교과과정은 직접 산업계에 취업하여 지장이 없도록 이론보다는 산업계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도서관학과 교과과정이 실업계 학과 교과과정의 상황과 유사하고 위의 결론이 타당한 것이라면 전자는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이 도서관이나 정보관에서 일할 때 그들의 실무에 직접 필요한 과목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절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육을 평가해 보려는 것이다.

5.1 실습의 필요

정보관리 전문직의 교육을 완성하는 데는 정보관에서 일해 본 경험이나 아니면 적어도 정보관의 여러 부서를 거치며 행한 단기 견습과 같은 정보관리실무의 직접적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한 경험은 공식교육 기간중이나 전이나 후의 어느 시기에 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식

교육 전이나 후에 학생들이 그러한 경험을 가질 기회를 마련하는 도서관 학과가 없다. 공식교육 기간 중에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경험의 기회가 약간 마련될 뿐이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 16개 도서관학과 중 14개(87.5%) 학과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실습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나머지 2개(12.5%) 학과는 어떤 방법으로도 실습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키는 14개 학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습 방법은 「강의시간 중에」(78.6%)하는 방법과 「과제물로」(71.4%)하는 방법이며, 정보관 견학중에 실습기회를 마련하는 학과도 7개(50.0%)가 있다. 1개 학과에서는 정해진 「실습기간 중 학과실습실에서」 학생들이 그러한 경험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마지막 경우를 빼고 위의 세가지 방법으로는 교육자와 학생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각 방법의 구조적 제한조건 때문에 실습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표 6〉 정보학교육에 채택된 실습방법

실 습 방 법	실 습 하 는 대 학														계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강의시간 중에	○	○	○	○	○	○		○	○		○	○		○	11	78.6
과제물로	○	○	○	○	○	○	○		○		○			○	10	71.4
견학중에			○			○	○	○	○	○				○	7	50.0
실습기간중 학과 실습실에서													○		1	7.1
계	2	2	3	2	2	3	2	2	3	1	2	1	1	3	29	

5.2 정보관리 실무 습득에 있어서 정보학의 기여

위의 의문이 정보학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의 평가를 보여주는 표 7에는 실제상황으로 나타나 있다. 질문지에 응답한 21명의 도서관학과 출신 정보관리 실무자는 그들이 졸업 후 처음으로 맡은 일을 수행

〈표 7〉 정보학 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의 평가

질 문	응답 회 수				가 중 치				계
	1	2	3	4	4	3	2	1	
1. 대학에서 이수한 정보학 과목들이 귀하가 졸업 후 정보관리자로 취직하여 처음으로 맡게된 일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3	7	11		12	21	22		55
2. 그 후 처음 맡았던 일이 바뀌었다면 두번째 혹은 세번째로 새 일을 맡았을 때에는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1	8	7	1	4	24	14	1	43
3.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의 이론들이 여러가지 정보관리 실무의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2	11	8		8	33	16		57
4.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 과목들의 내용이 정보관리 전문직의 사회적 사명과 가치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6	10	3	2	24	30	6	2	62
5.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 과목들의 내용이 귀하가 정보관리 전문직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하고 바른 태도와 봉사 정신을 함양하는데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7	7	3	2	28	21	6	2	57

함에 있어서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하였느냐고 물은데 대하여 다섯개의 문항중 끝에서 두번째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이 「아주 유용하였다」고 한 응답자가 3명(14.3%) 있기는 하나 「유용하였다」고 한 응답자는 7명(33.3%)이며 양자를 합한 수보다 더 많은 11명(52.4%)은 「약간 유용하였다」고 불만스러운 응답을 하고 있다. 졸업자들이 두번째 혹은 세번째로 새 일을 맡았을 때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의 지

식과 기술이 얼마나 유용하였느냐고 물은데 대하여는 다섯 개의 문항중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대학교육에서 얻은 것이 정보관리 실무 수행에 「유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정보관리 실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학 교육의 측면이 도서관학과 졸업자들로부터 낮게 평가되는 것은 그러한 측면이 적절한 실습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정보학의 기술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서관학과와 정보학 교육은 실습과정이 부실하거나 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이 정보학 교육의 다른 측면 곧 실습과정과 상관이 적은 이론적 요소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간접적으로 입증된다. 표 7에 표시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이 정보관리전문직의 사회적 사명과 가치를 이해하는데, 정보관리전문직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하고 바른 태도와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그리고 정보관리 실무의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또는 「유용하였다」고 답하고 있다.

5.3 졸업자들이 기대하는 정보학 교육

정보관리전문직에 들어가려는 도서관학과 학생들은 당연히 그들이 졸업 후 처음 맡게될 일과 그 일이 두번째, 세번째로 바뀌며 새로 맡게될 여러가지 일들을 즉각 유능하게 시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정보학 교과목들을 통하여 다 배웠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표 8은 그러한 입장에서, 정보관리전문직에 들어간지 수년 된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이 그들이 받은 정보학 교육을 돌아다 보며 평가하고 정보학 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여 표시한 것이다.

표 8에서 보듯이 21명의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답한 다섯 개 문항 가운데 (4)항과 (3)항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즉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은 앞으로 정보학 교육에서 「어떤 형태로든 실습이 현재 보다 더 많이 행해져야 한다」(52.4%), 「광디스크, 인공지능의 이용법 등 최

〈표 8〉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이 희망하는 정보학 교육의 개선 방향

개 선 방 향	응 회 답 수	%
졸업자들이 여러가지 정보관리 실무를 맡았을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도서관학과와 정보학 과목들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정보학 교육을 개선하려면 교과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이론적 측면보다 기술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7	33.3
(2) 기술적 측면보다 이론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0	0.0
(3) 광디스크, 인공지능의 이용법 등 최근에 발달되고 있는 분야들이 현재보다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	10	47.6
(4) 어떤 형태로든 실습이 현재보다 더 많이 행해져야 한다.	11	52.4
(5) 현행 교과 내용은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8	38.1

근에 발달되고 있는 분야들이 현재보다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47.6%)고 지적한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을 받은 문항은 「현행 교과내용은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38.1%)는 (5)항과 그 개정의 방향이 「이론적 측면보다 기술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33.3%)는 (1)항이다. 표 8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앞으로 정보학 교과목 내용에서 「기술적 측면보다 이론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2)항에는 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응답자들은 정보학 교육의 개혁에 있어서 질문지에 주어진 다섯 개 문항 외에 몇가지가 더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그 내용을 질문지의 여백이나 별도의 지면에 적어서 보내 왔다.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추려서 아래에 제시한다.

(1) 많은 현장 견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정보처리과정의 실체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전수된 정보학의 이론이 구체적 현실에 연계되게 하여야 한다.

(2) 사무자동화의 이론과 기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자료처리의 이론과 기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르쳐야 한다.

(4) 주요 외국어교육이 지금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많은 데이터베이스는 외국어로 작성된다.

본 장의 논의 전체를 통해서 확실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한가지 사실은 정보관리 실무에 종사하는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이 과거 그들이 받은 정보학 교육의 내용은 여러가지 정보관리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앞으로 직접 도움이 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6. 정보관 운영자가 바라는 교육

요리사는 음식을 만드는 전문가일 뿐 그 음식의 질을 판단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것은 물론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정보학 교육자는 정보관리 전문직 종사자를 양성하는 전문가이다. 그들이 양성한 졸업자들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정보관 운영자이다. 이론상 양자는 자주 대화하며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어야 하나 실제로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미국의 도서관학 교육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한 코난트보고서(Conant, 1980)도 도서관학 교과과정 편성에 있어서 도서관학 교육자와 도서관 운영자 간에 대화와 협조가 부족한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여러번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도 지적하고 있다. 즉 도서관 운영자들은 도서관학 교육자들이 도서관 전문직의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이론과 기술이 출현하는 즉시 인지하여 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입학자 선발기준 가운데 특히 입학자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으며, 도서관학 교육자들이 도서관의 최근 문제와 동향에 대하여 실용성 있는 교육을 할 생각으로 현장과 자주 접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며 도서관학 교육에 대하여 할 말이 많으나 현실적으로 도서관학 교육자와 직접 만날 기회가 매우 적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보관 운영자와 정보학 교육자의 관계도 위의 양자 관계와 유사하다고 본다.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보관 운영자가 바라는 정보학 교육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정보학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정보관 운영자의 기대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려는 것이다.

6.1 이론과 기술의 균형

정보관 운영자들이 바라는 정보학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 보려는 부록 4에 표시된 질문지에 응답한 27명 가운데 8명은 정보학 교육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따로 적어서 응답지에 동봉하여 보내 왔다. 본 절에서는 그 의견들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정보관 운영자들은 정보학 교육에는 당연히 실습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도서관학과 학생들이 재학중 강의실에서 배운 원리들을 정보관의 실무활동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그들이 실습만 가르치는 정보학 교육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정보학 교과목들에서는 정보관리 전문직의 이론과 원리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정보관리 활동을 대국적으로 이해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는 관리직에 앉힐 졸업자들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보관 운영자들이 비판하는 표적은 정보학의 이론을 가르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보관 운영자들은 이론과 실습간의 균형을 바라는 것이지 단순히 이론을 줄이고 실습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다. 한 연구소 기술정보실장은 이렇게 적고 있다. 「도서관학과를 막 졸업한 사람은 단지 대학교육을 받은 지식인에 지나지 않아 바로 어느 정보관리 실무직 자리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술자료실에서 하는 방식에 대한 상당 기간의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에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육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2 정보관 운영자가 바라는 정보학 교육의 내용

부록 7은 부록 4의 질문지 응답자료를 전산처리하여 얻은 결과를 표시한 것이다. 부록 7은 정보관 운영자들이, 도서관학과에서 정보학분야의 어떤 주제들을 어떤 중요도로 가르쳐야 한다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부록 7에 열거된 교수세목들은 자료를 처리할 때의 편의를 고려하여 부록 2의 정보학분야 연구개발 주제 체크리스트에 열거된 주제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부록 7에 표시된 「중요도」(1, 2, 3, 4)는 응답자들이 자기 판단에 따라 선택한 각 문항의 교육상 중요도이다. 부록 7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1) 정보관 운영자들은 「계량서지학」을 포함한 67개 주제가 정보학 교육에서 다룰 가치가 적다고 판단하며, 이 수는 우리나라의 어느 도서관학과에 서도 가르치지 않는 102개 주제보다 35개가 적은 것이다. 즉 정보관 운영자들은 정보학 교육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주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2) 정보학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정보관 운영자들이 생각하는 주제의 대부분은 실무기술과 관련된 주제들이며, 효율적으로 가르치려면 실습을 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부록 7에서 Z값이 7.00 이상인 주제들을 추려서 열거한 표 9를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3) 정보학 교육자들은 정보관 운영자들이 정보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믿는 주제들을 가르칠 때 그렇지 않은 주제를 다룰 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강조할 용의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 경우 부록 7의 Z값이 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보학 교육자들이 가르치지 않는 102개 주제중 부록 7에서도 5% 유의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38개 주제들은 현장의 요구가 약하여 수업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주제들은 표 5와 부록 7을 대조하여 작성된 표 10에 표시되어 있다.

6.3 정보학 교육의 실제에 반영된 정보관 운영자의 기대

정보관 운영자들은 부록 7에서 Z값이 1.96 이하로 5% 유의수준에서 기각된 67개 주제를 제외한 237개 주제를 도서관학과와 정보학 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부록 7과 같은 주제표를 사용한 부록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 학과에서 가르치는 정보학 주제는 202개이므로 부록

〈표 9〉 Z 값이 7.00 이상인 정보학 주제들

번호*	주 제	Z 값	번호*	주 제	Z 값
13	데이터베이스	15.85	142	정보—축적	8.15
17	데이터베이스—작성법	7.23	143	정보—커뮤니케이션	7.23
22	데이터베이스, 서지	18.11	146	정보, 과학기술	11.00
29	데이터베이스, 주제별	7.54	148	정보, 주제별(예: 환경정보)	8.15
35	디소러스	8.91	149	정보검색	36.50
38	마이크로컴퓨터	7.46	157	정보검색—마이크로컴퓨터의 이용	7.23
43	문헌 검색	13.26	166	정보검색—온라인 검색	8.91
44	문헌 검색—연관색인법	7.99	168	정보검색—자동화	7.54
47	문헌 분류	10.00	169	정보검색—자연어에 의한 검색	7.59
62	색인법	7.75	171	정보검색—정확률	7.99
64	색인법—자동화	7.18	177	정보검색—정보검색시스템	11.29
65	색인법, 순열	7.04	187	정보검색—주제명시스템	8.91
68	색인어	7.98	191	정보검색시스템, 온라인	13.26
79	시스템, 온라인—봉사적 측면	7.23	197	정보관리	14.26
80	시스템, 온라인—이용자 교육	8.10	204	정보봉사	8.15
85	에스·디·아이(SDI)	7.54	208	정보봉사망, 세계 주요	11.63
93	온라인 목록	10.00	212	정보속보봉사	7.54
96	이용자 관심주제(user-profile)	8.46	213	정보시스템	9.48
115	일차문헌과 이차문헌	7.23	214	정보시스템—구성	8.10
130	정기간행물	10.54*	215	정보시스템—분석	8.10
131	정보	14.32	216	정보시스템—서비스	9.14
133	정보—배포	7.54	229	정보시스템, 주제별	7.54
134	정보—수집	7.54	235	정보전문직	7.18
135	정보—유용성	7.76	244	정보학	12.12
137	정보—이용유형	7.22	245	정보학—도서관학과 정보학	8.46

번호*	주 제	Z 값	번호*	주 제	Z 값
246	정보학—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	8.46	284	키워드색인법	12.29
247	정보학—미래의 정보학	8.64	285	탐색기법	7.23
256	초록	11.30	287	탐색, 온라인	10.54
264	최신정보주의	14.32	300	화일(file)	7.23
270	축차간행물	8.15	303	화일—작성법	7.12

* 부록 2의 일련번호와 같음.

〈표 10〉 현재 수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정보관 운영자들도 교육상 가치가 적다고 판단하는 정보학 주제

번호*	주 제	Z 값	번호*	주 제	Z 값
3	광디스크—기술현황	-0.65	89	원거리통신—기술적 측면	-1.48
7	기술 이진	-0.48	90	원거리통신—시설	-0.81
9	데이터 보호	1.83	91	원거리통신—원거리 자료 처리 네트워크	1.83
10	데이터 보호—입법의 필요성	0.13	99	인공지능	1.80
12	데이터 보호—전산실적 원이 유의할 일	0.10	100	인공지능—기술적 측면	0.10
25	데이터베이스, 서지—지프의 모형	-0.29	106	인공지능—텍스트 구성법	1.67
26	데이터베이스, 서지—클러스터 분석	0.29	117	자동번역법	1.28
27	데이터베이스, 서지—판매	-1.81	124	전산기 중개에 의한 개인간 대화	0.33
32	데이터통신망—설치계획	(.31)	125	전산기 중개에 의한 기관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1.34
39	마이크로프로세서	0.51	127	전자식 문헌 전송법	1.04
72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1.64	144	정보—판매	0.14
73	시스템 기술	-0.11	162	정보검색—시험	1.85
87	원거리통신	0.86	173	정보검색—최대 엔트로피 원리	1.37
88	원거리통신—국가정책	1.48	205	정보봉사—개발 도상국에서의 문제	1.47

번호*	주 제	Z 값	번호*	주 제	Z 값
218	정보시스템—시험	1.15	262	초록—판매	-0.33
219	정보시스템—「오·알」의 이용	1.62	272	출판—역사	1.87
221	정보시스템—인공지능의 이용	0.77	274	출판, 재래식	0.12
237	정보정책—개발 도상국에서의 문제	0.95	289	탐색, 온라인—심리적 측면	1.80
240	정보정책, 국가별	1.48	299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책	1.08

* 부록 2의 일련번호와 같음.

<표 II> 정보관 운영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도서관학과에서 가치치 않는 정보학 주제들

번호*	주 제	Z 값	번호*	주 제	Z 값
2	광디스크	3.68	82	시·디·롬(CD-ROM)	4.43
4	광디스크—미래의 이용 전망	3.04	84	언어처리의 자동화	3.29
5	광디스크—정보추적매체로서	4.27	92	원거리 통신—미래의 이용 전망	2.11
6	기계가독형사전	2.13	98	인간의 정보처리 습관	3.97
11	데이터 보호—정보봉사에 미치는 영향	2.83	101	인공지능—미래의 이용 전망	2.60
14	데이터베이스—규격	2.60	102	인공지능—엑스퍼트시스템	1.97
19	데이터베이스—평가법	4.61	103	인공지능—자연어 처리법	3.29
24	데이터베이스, 서지—주제별	6.92	104	인공지능—감제적 활용분야	2.31
33	데이터통신망—정보봉사에서 이용	3.81	105	인공지능—질의·응답 시스템	2.11
40	메뉴선택시스템	3.15	111	인용문헌—클러스터링	3.89
46	문헌검색—학제적 주제	4.27	120	장서관리에 있어서 계량서지학의 응용	2.76
49	미래의 인쇄자료	2.55	128	전자식 상호대출	2.17
59	사무실 자동화	2.87	129	전자식 학술잡지	2.39
61	산업후사회	2.06	135	정보—유용성	7.76
71	서지작성 규격	5.27	139	정보—전송모형	2.11

번호*	주 제	Z 값	번호*	주 제	Z 값
148	정보, 주제별(예: 환경정보)	8.15	239	정보정책-과학기술	6.51
150	정보검색-간접적 방법	3.27	241	정보정책, 국제	2.29
151	정보검색-고프면의 검색기법	2.00	242	정보처리 규격	4.23
167	정보검색-의사결정 모형	2.16	256	초록-미래의 초록	5.20
182	정보검색-시뮬레이션	2.76	258	초록-수록범위	6.92
196	정보관-전산기의 이용	3.74	265	최신정보 주지-비용대 이익 분석	2.91
199	정보관-미래의 정보관리	5.47	266	최신정보 주지-소프트웨어 패키지	3.52
203	정보관리-국가별	6.51	273	출판-전산기의 이용	3.85
206	정보봉사-공·사립기관간의 협조	3.13	275	출판, 전자식	2.69
211	정보산업	4.25	281	커뮤니케이션-학술잡지가 이루는 네트워크	6.17
225	정보시스템-필요성	3.52	283	커뮤니케이션, 분야별	2.11
227	정보시스템, 분야별	6.34	288	탐색, 온라인-만족도	3.52
228	정보시스템, 서지	6.90	291	탐색, 온라인-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5.09
229	정보시스템, 주제별	7.54	292	탐색, 온라인-정보의 손실	3.68
232	정보유통과정, 국가간	3.70	293	탐색, 온라인-클러스터 분석	2.55
236	정보정책	5.14	298	탐색, 분야별 온라인	5.94
238	정보정책-산업분야에서의 문제	2.76	304	화일-평가법	4.53

* 부록 2의 일련번호와 같음.

6과 부록 7을 비교할 때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정보학 교육의 실제에서 다루는 범위가 정보관 운영자들이 기대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양자의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부록 7과 표 4를 비교하여 표 11이 작성되었다. 표 11에 나타난 자료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 (1) 바람직한 정보관리전문직의 교육을 위해서는 정보학 교육자와 정보관

운영자들이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이것은 곧 정보학 교육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자가 후자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 11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정보학 교육자들이 정보관 운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4개의 정보학 주제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2) 정보학 운영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지 않는 정보학 주제들 가운데는 Z값이 4.00 이상으로서 정보관 운영자들의 판단으로는 중요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주제가 23개나 있다.

(3) 정보관 운영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들이지만 도서관 학과에서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아마 정보학 교육자들이 정보관 운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줄은 아나 그 주제들이 현재와 미래의 정보관리전문직 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정보관 운영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정보학 교육자들은 표 11에 나타난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정보관 운영자의 기대가 정보학 교육의 실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결 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에 기초하여 얻은 주요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도서관학과중 대부분은 4~5개(평균 4.1개)의 정보학 교과목을 가르치며, 「정보학개론」, 「정보검색」 및 「도서관자동화」의 세 교과목을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나 한 교과목 밖에 가르치고 있지 않거나 한 교과목도 가르치고 있지 않는 학과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세에 비추어 정보학 교과목 수를 늘려 해당 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졸업 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는 한편 정보관리 전문직의 발전에도 다른 학과와 같은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학분야에서 연구 개발된 주요 주제 가운데 약 3분의 2는 우리나라의 어느 도서관학과에선가 가르치고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은 어느 도서관

학과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주제들의 연구성과는 적어도 학교 교육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관리전문직의 실무활동에 반영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 주제들의 연구 성과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우리나라에서는 누릴 수 없다. 정보학 교육자간의 조정활동으로 이 주제들이 어느 도서관학과에서든 다루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우리나라의 도서관학과들은 정보학분야에서 연구 개발된 전체 주제 가운데 평균 46.1%의 주제를 가르치며, 각 학과에서 가르치는 주제들이 대부분 다른 학과에서 가르치는 것과 중복된다. 정보학 지식의 근간을 이루는 주제들을 제외한 주제들의 불필요한 중복은 정보학 교육에 있어서 학과별 특성화를 막고 결과적으로 모든 도서관학과가 유사한 자질을 가진 정보관리자를 배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보관리전문직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복된 주제들을 가르치는 일은 정보학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술로 한정하여 최소화하고 학과별로 교육내용을 최대한 특성화하여 정보학분야의 모든 연구성과들이 빠짐없이 우리나라의 어느 한 도서관학과에서라도 다루어지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은 그들이 받은 정보학 교육의 정보관리 실무 수행과 관련된 측면을 낮게 평가하며, 그 이유는 그러한 측면이 적절한 실습 과정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성질의 기술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육이 실습과정이 부실하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보관리 실무에 직접 유용한 정보학 교육을 위해서는 재학중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습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5)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은 그들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론적 측면보다 기술적 측면이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현행 정보학 교과목 내용이 대폭 수정되어야 하며 광디스크나 인공지능의 이용 등 최근에 발달되고 있는 기술들이 현재보다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이 정보학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정보학 교육은 결국 그들을 위한 것이므로 그들의 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정보학 교육의 실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6) 정보관 운영자들은 도서관학과 학생들이 재학중 강의실에서 배운 정보학의 원리들을 정보관의 실무활동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실습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 정보관 운영자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을 줄이고 실습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습간의 균형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정보학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에 실습기회를 충분히 히마련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7) 정보관 운영자들은 정보학 교육자들이 현재보다 더 많은 주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실무기술과 관련된 주제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믿는다. 바람직한 정보관리전문직의 교육을 위해서는 정보학 교육자와 정보관 운영자가 밀접하게 협력하여야 하므로, 즉 정보학 교육의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보학 교육자는 도서관학과 졸업자의 사용자인 정보관 운영자의 기대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고 정보학 교육의 실제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慶應義塾大學 文學部, 圖書館・情報學科(1986). 要覽(昭和 61~62年度), 東京: 同學科.
2. Belzer, J. et al. (1971). Curricula in information analysis and developmen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2 : 193~223.
3. Belzer, J. et al. (1975). Curriculum in information science: four years progress repor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26 : 17~32.
4. Borko, H.; Goldstein, E. (1987). Information science courses. In: *Internationaliz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a handbook of policies and procedures in administration and curriculum*, ed. by J.F. Harvey and F.L. Carroll. New York: Greenwood Press. 275~89.
5. Bracken, M.S.; Shilling, C.W. (1968). Survey of practical training in information science. *American Documentation*. 114.
6. Chaudhry, A.S. (1988). Information science curricula in graduate schools in

- Asia.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20 : 185~202.
7. Conant, R.W. (1980). *Report: a study of the education of librarians*. Cambridge: MIT Press.
 8. Fosdick, H. (1978). Library education in information science. *Special Libraries*. 69 : 100~8.
 9. Fosdick, H. (1984). Trends in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Special Libraries*. 75 : 292~302.
 10. Grant, F.L.; Main, R.G. (1986). Curriculum 1984: meeting the needs of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7 : 12~9.
 11. Havard-Williams, P. (1976). The fu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In: *Prospects for British librarianship*, ed. by K.C. Harrison. London: The Library Association. 29~42.
 12. Isabella, S.M. (1964). Information science instructions in ALA accredited library school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Documentation Institute*. Washington: The Institute. 67~72.
 13. McGlothlin, W.J. (1961). Insights from one profession which may be applied to education for other professions. In: *Current issues in higher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16th annual national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 ed. by G. Kerry Smith. Washingto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120.
 14. McGrath, E.J. (1962). The ideal education for the professional man. In: *Education for the professions, sixty-first yearbook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art II, ed. by N. B. Hen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90.
 15. Rees, A.; Riccio, D. (1967). *Curriculum: information science*. Drexel Library Quarterly. 3 : 108~14.
 16. Tague, J. (1979).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library program*. Canadian Library Journal. 36 : 89~99.

부록 1. 정보학 교육자들에게 보낸 질문지

교수님

저는 지금 서봉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정보학교육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학 교과가 우리나라 도서관학 교과과정에 들어온 지 20 여년이나 되었으나 그동안 우리가 가르치는 정보학 교과의 내용과 범위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도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할 때가 되었다고 믿어서 제가 감히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은 제가 하였으나 일은 정보학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의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학으로 쉬시는데 미안하나 질문지를 하나 첨부하여 보내오니 그 속의 다섯가지 물음에 솔직하고 정확한 답을 표시하여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1988년 8월 5일까지 저에게 도착하도록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수행에 긴급하오니 다음의 두 가지도 같이 넣어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1) 교수님의 학과에서 지난 3년간(1985 학년 1학기~1987 학년 2학기)에 개설된 정보학과목들의 강의계획표 1부씩
- (2) 1983~85년 사이에 졸업한 학생중 졸업후 곧 정보관리기관이나 산업체 자료실에 취직하여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 3명의 이름과 우편주소

이 연구는 각 대학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육내용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보학교육을 전체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려는 의도이므로 연구보고서 속에 특정 도서관학과의 이름이 표시되거나 간접적으로 시사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더운 계절에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8년 7월 20일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崔 成 眞 올림

도서관학과에서 가르치는 정보학 교과에 관한 질문

1. 교수님이 소속한 학과의 현행 교과과정 속에 포함된 정보학 교과목들은 언제 포함되었습니까? (학과의 교과과정이 전체적으로 개편될 때 포함되었다면 그 해를 표시해 주시고, 그 후에 다시 정보학 교과목들을 부분적으로 첨가 또는 삭제한 일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그렇게 한 해를 표시해 주십시오.)

19()년

2. 교과과정 속에 포함된 정보학 교과목들 가운데서 지난 3년간(1985 학년 1학기부터 1987 학년 2학기까지)에 실제로 개설된 것은? (교과목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 () 학점)
 () () 학점)
 () () 학점)
 () () 학점)
 () () 학점)

- * 위에 적힌 교과목들의 강의 계획표를 한 부씩 보내 주십시오. (강의계획표는 학생들에게 배포되었던 것이면 좋겠으나 그런 것을 배포한 일이 없으면 죄송하오나 교수님께서 개인용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신 것을 한 부 복사하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정보학 교과목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 있다. () 없다.

4. 위에서 『있다』고 표시하셨다면 아래의 어떤 방법으로 실습을 시켰습니까?

과목명	강의시간 중	과제 물로	견학 중	기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타
(가)	()	()	()	()	()
(나)	()	()	()	()	()
(다)	()	()	()	()	()
(ㄷ)	()	()	()	()	()
(ㄹ)	()	()	()	()	()

5. 정보학을 전통적 도서관학 교과목들의 내용에 통합하여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의 학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해당 과목들을 아래에 열거하여 주십시오.

- (가)
- (나)
- (다)
- (ㄷ)
- (ㄹ)
- (시)

응답자 소속대학 :

직위 :

이름 :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강의계획서와 졸업생 명단을 같이 넣어서 회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록 3. 정보관리 실무자에게 보낸 질문지

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보학 교육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에 도움을 받고자 얼마전에 대학(교) 교수님에게 1983 년에서 1985년 사이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정보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부탁의 결과로 주소를 알아 이 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봉한 질문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과 범위가 처음 정보관리직을 맡게 되는 도서관학과 졸업자들에게 얼마나 유용한 지를 알아 보려는 것입니다. 정보학 교육을 포함한 모든 전문직 양성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장차 해당 전문직의 여러가지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얻게 하는 것이므로 전문교육의 개혁방안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졸업자들의 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봉한 질문지를 한번 보신 후 솔직한 답을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각 대학의 정보학 교육 실태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보학 교육의 전체적 수준과 범위를 조사하여 제시하려는 것이므로 응답자가 모교의 교육을 변호하려고 사실을 왜곡하여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으려고 응답자의 출신대학을 추적할만한 어떠한 표시도 의도적으로 질문지 속에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지에 답한 후에는 동봉한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늦어도 8월 말까지 저에게 도착하도록 보내 주십시오.

저로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학 교육과 정보관리 전문직의 발전에 중요한 공헌을 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이 연구에 귀하가 참여하여 협조해 주시는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1988년 8월 일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최 성 진

정보학 교육의 유용성에 관한 질문

귀하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보관리 실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학에서 이수한 정보학 과목들이 어느 정도로 유용하였는지를 다음의 표시요령에 따라서 왼쪽 괄호 안에 V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문에 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시 요령>

- 1 매우 유용하였다.
- 2 유용하였다.
- 3 약간 유용하였다.
- 4 유용하지 않았다.

<표시 예>

유 용 성				질 문
1	2	3	4	

() (V) () () 1. 대학에서 이수한 정보학 과목들이 귀하가 졸업 후 정보관리자로 취직하여 처음으로 맡게된 일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유 용 성				질 문
1	2	3	4	

() () () () 1. 대학에서 이수한 정보학 과목들이 귀하가 졸업 후 정보관리자로 취직하여 처음으로 맡게된 일을 수

행하는데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 () () () () 2. 그 후 처음 맡았던 일이 바뀌었다면 두번째 혹은 세번째로 새 일을 맡았을 때에는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의 지식과 기술이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 () () () () 3.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의 이론들이 여러가지 정보관리 실무의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고 평가하는데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 () () () () 4.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 과목들의 내용이 정보관리 전문직의 사회적 사명과 가치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 () () () () 5. 대학에서 배운 정보학 과목들의 내용이 귀하가 정보관리 전문직으로서 긍지를 가지게 하고 바른 태도와 봉사정신을 함양하는데 얼마나 유용하였습니까.
6. 졸업자들이 여러가지 정보관리 실무를 맡았을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도서관 학과의 정보학 과목들이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정보학 교육을 개선하려면 교과내용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론적 측면보다 기술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 () 기술적 측면보다 이론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 () 광디스크, 인공지능의 이용법 등 최근에 발달되고 있는 분야들이 현재보다 더 많이 다루어져야 한다.
- () 어떤 형태로든 실습이 현재보다 더 많이 행해져야 한다.
- () 현행 교과내용은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

부록 4. 정보관 운영자에게 보낸 질문지

님

도서관학과에서 정보학 교과목들을 가르치는 주요 목적은 학생들이 정보관리라는 전문직의 사회적 사명을 이해하고 장차 여러가지 정보관리실무를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질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학 교과목들의 내용이 현재와 미래의 정보관리 현장의 요구 즉 정보관리기관의 각종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서관학과의 정보학 교육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학 교육자와 정보관리분야의 지도자들이 같이 의논하고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서관학 교과과정 속에 정보학 교과목들이 들어온지 20년이 넘도록 이 일은 한번도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저는 지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정보관리 현장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나라의 정보학 교육이 이 나라 이 시대의 요구에 더 밀접하게 기초하여 행해지도록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하나 마련하여 제시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동봉한 질문지를 꼭 보신 후 솔직하고 정확한 답을 표시하여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지를 보내 주실 때에는 동봉한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저에게 도착하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로서는 우리나라의 정보학 교육과 정보관리 전문직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 믿으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연구에 귀하가 참여하여 협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1988년 8월 일

성균관대학교 도서관학과

최 성 진 올림

정보관리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관한 질문

지난 10년간(1977~86) 세계의 정보학자들이 연구 개발한 주제들을 조사하여 아래에 열거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정보관리 활동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표시 요령에 따라서 왼쪽 괄호안에 V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직무규정이나 일반적 원칙을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께서 평소 정보관리 활동을 하는 중에 얻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판단하여 칸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모든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 요령>

- 1 정보관리활동에 매우 중요하다.
- 2 정보관리활동에 필요하다.
- 3 정보관리활동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 4 필요하지 않다.

<표시 예>

중 요 도				정보관리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1	2	3	4	

- (V) () () () 1. 정보검색시스템의 기능
- () () (V) () 2. 정보정책
- () () () (V) 3. 지프의 법칙

중요도				정보관리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1	2	3	4	
()	()	()	()	1. 계량서지학
()	()	()	()	2. 광디스크
()	()	()	()	3. 기술현황
()	()	()	()	4. 미래의 이용전망
()	()	()	()	5. 정보추적매체로서
()	()	()	()	6. 기계가독형 사진
()	()	()	()	7. 기술이전
()	()	()	()	8. 기호학
()	()	()	()	9. 데이터 보호
()	()	()	()	10. 입법의 필요성
()	()	()	()	11. 정보봉사에 미치는 영향
()	()	()	()	12. 전산실 직원이 유의할 일
()	()	()	()	13. 데이터베이스
()	()	()	()	14. 규격
()	()	()	()	15. 역사
()	()	()	()	16. 산업분야에서의 이용
()	()	()	()	17. 작성법
()	()	()	()	18. 종류
()	()	()	()	19. 평가법
()	()	()	()	20.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	()	()	()	21. 데이터베이스, 본문정보
()	()	()	()	22. 데이터베이스, 서지
()	()	()	()	23. 작성법

(이하 생략)

부록 7. 정보학 교수세목에 대하여 정보관 운영자들이
부여하는 중요도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1. 계량서지학	3	12	9	1	2.32	1.20@
2. 광디스크	3	17	5		2.08	3.68
3. 기술현황	1	11	10	3	2.60	-0.65@
4. 미래의 이용전망	7	12	5	1	2.00	3.04
5. 정보촉적매체로서	10	11	3	1	1.80	4.27
6. 기계가독형 사진	5	12	7	1	2.16	2.13
7. 기술이전	2	8	9	5	2.60	-0.48@
8. 기호학	1	5	13	5	2.80	-1.56@
9. 데이터 보호	5	11	8	1	2.20	1.83@
10. 입법의 필요성	3	7	13	1	2.48	0.13@
11. 정보봉사에 미치는 영향	4	14	7		2.12	2.83
12. 전산실 직원이 유의할 일	3	7	11	3	2.48	0.10@
13. 데이터베이스	20	5			1.20	15.85
14. 규격	9	9	5	2	2.00	2.60
15. 역사		10	10	5	2.84	-2.27@
16. 산업분야에서의 이용	11	10	3	1	1.72	4.64
17. 작성법	12	11	2		1.56	7.23
18. 종류	11	10	4		1.64	5.49
19. 평가법	7	14	4		1.80	4.61
20.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13	8	4		1.64	5.66
21. 데이터베이스, 주제별	13	8	4		1.64	5.66

@ 5% 유의수준 이하("Z"값 ≤ 1.96)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22. 데이터베이스, 서지	21	4			1.16	18.11
23. 작성법	12	11	2		1.60	6.92
24. 주제별	12	11	2		1.60	6.92
25. 지프의 모형	2	9	8	5	2.56	-0.29@
26. 클러스터(cluster) 분석	3	9	8	4	2.44	0.29@
27. 판매	3	4	12	6	2.84	-1.81@
28. 데이터베이스, 수치	6	9	7	2	2.12	1.88@
29. 데이터베이스, 주제별	14	9	2		1.52	7.54
30. 데이터통신	9	13	3		1.76	5.61
31. 데이터통신망	10	12	3		1.76	5.14
32. 설치계획	4	12	7	2	2.28	1.31@
33. 정보봉사에서의 이용	11	7	5	1	1.76	3.81
34. 시소러스(thesaurus)	18	5	2		1.36	8.91
35. 디스크립터	16	7	1	1	1.48	6.62
36. 마이크로컴퓨터	10	9	6		1.84	4.13
37. 소프트웨어	8	10	7		1.96	3.42
38. 도서관 이용	14	8	2		1.44	7.46
39. 마이크로프로세서	3	10	10	1	2.40	0.51@
40. 메뉴선택시스템	6	11	7	1	2.04	3.15
41. 메들라인(MEDLINE)	4	8	9	3	2.44	0.28@
42. 문헌 속의 논문분포	5	13	5	1	2.04	2.74
43. 문헌검색	18	7			1.28	13.26
44. 연관색인법	12	11	1		1.44	7.99
45. 클러스터링(clustering)	7	13	3	1	1.84	3.88
46. 학제적 주제	8	13	2	1	1.80	4.27
47. 문헌분류	16	8	1		1.36	10.00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48. 문헌의 가치수명	5	13	7		2.08	3.00
49. 미래의 인쇄자료	2	15	7		2.12	2.55
50. 분류법	13	10	1	1	1.60	5.92
51. 주요 분류법의 특징	8	11	3	2	1.88	3.13
52. 자동화	13	9	1	2	1.68	4.56
53. 분류법, 국제십진	8	10	4	2	1.92	2.84
54. 분류법, 체계	6	15	2	1	1.80	4.18
55. 분류법, 파셋	5	12	7		2.00	2.99
56. 브렛포드의 분산법칙	3	10	9	2	2.32	0.93@
57. 비공식 대화집단	3	11	6	4	2.36	0.66@
58. 비디오텍스	2	12	10	1	2.40	0.70@
59. 사무실 자동화	8	10	6	1	2.00	2.87
60. 사이버네틱스		7	13	3	2.64	-0.68@
61. 산업후사회	2	7	11	3	2.44	2.06
62. 색인법	18	5	2		1.40	7.75
63. 수록범위	14	8	3		1.56	6.62
64. 자동화	16	6	3		1.48	7.18
65. 색인법, 순열	13	9	2		1.48	7.04
66. 색인법, 용어열	12	9	3		1.56	5.98
67. 색인법, 조합	13	8	3		1.52	6.24
68. 색인어	16	6	2		1.36	7.98
69. 자연어의 제한점	12	7	4	1	1.68	4.23
70. 통계방식에 의한	11	6	6	1	1.80	3.42
71. 서지작성 규격	10	12	2	1	1.72	5.27
72.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6	10	7	2	2.20	1.64@
73. 시스템 기술	4	8	10	3	2.52	-0.11@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74. 시스템 설계	8	9	7	1	2.04	2.58
75. 기법	4	12	7	2	2.28	1.31@
76. 원칙	3	14	7	1	2.28	1.48@
77. 시스템, 온라인	10	12	3		1.72	5.74
78. 기술적 측면	5	9	9	2	2.32	1.00@
79. 봉사적 측면	13	9	3		1.56	7.23
80. 이용자 교육	12	12	1		1.56	8.10
81. 시스템이론	1	16	8		2.24	2.50
82. 시·디·롬(CD-ROM)	5	16	4		1.96	4.43
83. 어휘 통계법	10	9	6		1.84	3.88
84. 언어처리의 자동화	7	11	7		2.00	3.29
85. 에스·디·아이(SDI)	14	9	2		1.52	7.54
86. 엔트로피와 정보	2	13	8	2	2.36	0.76@
87. 원거리 통신	4	11	8	2	2.36	0.86@
88. 국가정책	5	9	10	1	2.24	1.48@
89. 기술적 측면	4	5	11	5	2.76	-1.48@
90. 시설	2	11	10	3	2.64	-0.81@
91. 원거리 자료처리 네트워크	4	13	6	2	2.20	1.83@
92. 미래의 이용전망	4	15	5	1	2.20	2.11
93. 온라인 목록	17	7	1		1.36	10.00
94. 이용습관	10	11	4		1.76	5.14
95. 장점과 단점	10	12	3		1.76	5.14
96. 이용자관심 주제(user-profile)	17	6	2		1.40	8.46
97. 이용집단 조사	12	10	3		1.64	6.14
98. 인간의 정보처리 습관	7	13	5		1.96	3.97
99. 인공지능	3	14	7	1	2.24	1.80@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100. 기술적 측면	4	9	8	4	2.48	0.10@
101. 미래의 이용전망	4	14	6	1	2.12	2.60
102. 엑스퍼트 시스템	5	14	5	1	2.20	1.97
103. 자연어 처리법	5	15	4	1	2.00	3.29
104. 잠재적 활용분야	2	17	5	1	2.20	2.31
105. 질의·응답시스템	3	15	6	1	2.20	2.11
106. 텍스트 구성법	4	12	8	1	2.24	1.67@
107. 인용문헌	6	16	3		1.88	5.17
108. 동기	1	16	7	1	2.32	1.42@
109. 분석법	1	18	4	2	2.28	1.62@
110. 연구전선(research front)	2	16	6		2.12	2.55
111. 클러스터링	3	16	5		1.96	3.89
112. 인용문헌색인	9	13	2	1	1.80	4.61
113. 인용문헌색인, 과학분야	9	13	2	1	1.80	4.61
114. 인용문헌서지법	9	12	3	1	1.84	4.13
115. 일차문헌과 이차문헌	10	13	1		1.56	7.23
116. 자동발췌법	6	12	5	1	1.96	3.03
117. 자동번역법	3	9	12		2.28	1.28@
118. 자동언어처리법	4	10	9	1	2.20	1.62@
119. 자연어처리법	6	11	6	1	2.00	2.69
120. 장서관리에 있어서 계량서지학의 응용	5	15	5	1	2.08	2.76
121. 전산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8	10	7		2.00	3.29
122. 전산기에 의한 정보추적기법	12	8	4	1	1.76	4.20
123. 전산기와의 대화	6	12	6	1	2.08	2.59
124. 전산기 중개에 의한 개인간 대화	4	9	9	3	2.44	0.33@
125. 전산기 중개에 의한 기관간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7	7	9	2	2.24	1.34@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126. 전산프로그램 작성법	6	9	10		2.20	1.83@
127. 전자식 문헌전송법	2	11	10	1	2.32	1.04@
128. 전자식 상호대출	7	6	11		2.08	2.17
129. 전자식 학술잡지	3	13	8		2.12	2.39
130. 정기간행물	18	6	1		1.32	10.54
131. 정보	19	6			1.24	14.32
132. 기호화	7	14	4		1.88	4.63
133. 배포	10	14	1		1.64	7.54
134. 수집	14	9	2		1.52	7.54
135. 유용성	11	13	1		1.60	7.76
136. 유통경로	8	15	1	1	1.80	4.93
137. 이용유형	8	16	1		1.72	7.22
138. 자원으로로서	8	13	2	2	1.92	3.37
139. 전송모형	4	14	6	1	2.20	2.11
140. 조직	3	18	4		2.00	4.31
141. 지식과 정보	10	13	2		1.68	6.51
142. 축적	16	7	2		1.44	8.15
143. 커뮤니케이션	13	10	2		1.56	7.23
144. 판매	3	9	12	1	2.48	0.14@
145. 평가법	5	15	5		2.04	3.38
146. 정보, 과학기술	14	11			1.40	11.00
147. 정보, 의미	10	13	2		1.68	6.51
148. 정보, 주제별(예: 환경정보)	16	7	2		1.44	8.15
149. 정보검색	24	1			1.04	36.50
150. 간접적 방법	7	13	2	2	1.88	3.27
151. 고프런의 검색기법	4	13	5	2	2.12	2.00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152. 검색기준	11	7	7		1.76	4.46
153. 검색어	15	8	2		1.52	6.90
154. 기본이론	17	5	3		1.60	5.49
155. 기호화	9	10	6		2.04	2.91
156. 데이터 입력	11	8	6		1.80	4.27
157. 마이크로컴퓨터의 이용	13	9	2	1	1.56	7.23
158. 마이크로폼자료의 검색	11	9	4	1	1.76	4.46
159. 미니컴퓨터의 이용	10	13	2		1.72	6.39
160. 불리언 논리	9	10	5	1	1.88	3.73
161. 비디오디스크	6	13	5	1	2.16	2.27
162. 시험	3	13	6	2	2.16	1.85@
163. 역사	1	10	12	2	2.64	-1.00@
164. 역할부호	5	13	5	1	2.00	2.82
165. 연결부호	5	13	4	2	2.04	2.42
166. 온라인 검색	20	5			1.36	8.91
167. 의사결정 모형	4	12	7	2	2.12	2.16
168. 자동화	15	9	1		1.52	7.54
169. 자연어에 의한 검색	14	8	2		1.40	7.59
170. 재현률	14	7	2	1	1.56	5.29
171. 정확률	14	9	1		1.44	7.99
172. 질문 작성법	10	12	3		1.72	5.74
173. 최대 엔트로피 원리	3	12	7	2	2.24	1.37@
174. 평가법	8	10	6		1.80	3.94
175. 표시장치	2	15	6	1	2.12	2.39
176. 확률이론의 적용	3	12	8	1	2.16	1.96@
177. 정보검색시스템	19	5	1		1.28	11.29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178. 구성	11	12	2		1.64	6.72
179. 기능	12	10	3		1.64	6.14
180. 메들라즈(MEDLARS)	3	11	6	4	2.36	0.66@
181. 모형	3	15	5	2	2.24	1.67@
182. 시뮬레이션	5	14	5	1	2.08	2.76
183. 유니털 시스템	2	16	5	1	2.12	2.39
184. 이용자의 적응	8	13	4		1.84	4.78
185. 자연어	11	11	2		1.56	6.49
186. 저자명시스템	12	10	3		1.64	6.14
187. 주제명시스템	18	5	2		1.36	8.91
188. 평가법	10	11	3		1.64	5.54
189. 환류(feedback)	8	13	4		1.84	4.78
190. 효율 측정법	8	11	5		1.80	4.18
191. 정보검색시스템, 온라인	18	7			1.28	13.26
192. 정보공학	6	14	5		1.96	3.97
193. 정보관	7	14	3		1.76	5.04
194. 개념	5	15	3	1	1.92	3.51
195. 봉사의 내용과 범위	6	15	3		1.80	4.83
196. 전산기의 이용	5	14	5		1.92	3.74
197. 정보관리	19	5			1.16	14.26
198. 국제조직	9	13	3		1.76	5.61
199. 미래의 정보관리	12	10	3		1.68	5.47
200. 정보요구의 조사	17	4	4		1.48	6.62
201. 정보요구의 종류	16	5	4		1.52	6.36
202. 이용집단	11	10	4		1.72	5.27
203. 정보관리, 국가별	10	13	2		1.68	6.51

교 수 세 목	중 요 도				평균값	Z 값
	1	2	3	4		
204. 정보봉사	16	7	2		1.44	8.15
205. 개발도상국에서의 문제	5	10	7	2	2.20	1.47@
206. 공·사립기관간의 협조	8	11	3	2	1.88	3.13
207. 원가분석법		12	10	2	2.48	0.12@
208. 정보봉사망, 세계 주요	15	10			1.36	11.63
209. 정보분석관	8	11	4	1	1.84	3.59
210. 정보사회	6	14	4	1	2.00	3.29
211. 정보산업	8	12	5		1.88	4.25
212. 정보속보봉사	13	10	2		1.52	7.54
213. 정보시스템	16	8	1		1.40	9.48
214. 구성	12	12	1		1.56	8.10
215. 분석	13	11	1		1.56	8.10
216. 서비스	15	9	1		1.44	9.14
217. 설계	10	11	4		1.76	5.14
218. 시험	4	8	11	1	2.28	1.15@
219. 「오·알」의 이용	2	15	7	1	2.28	1.62@
220. 인간적 요소	2	14	6	3	2.40	0.61@
221. 인공지능의 이용	2	14	8	1	2.40	0.77@
222. 질의·응답시스템	2	15	6	2	2.28	1.49@
223. 통제	2	16	6	1	2.20	2.31
224. 평가법	3	15	5	1	2.08	2.54
225. 필요성	5	16	3	1	2.00	3.52
226. 정보시스템, 국가별	6	15	3	1	1.96	3.70
227. 정보시스템, 분야별	12	12		1	1.60	6.34
228. 정보시스템, 서지	14	10		1	1.52	6.90@
229. 정보시스템, 주제별	14	9	2		1.52	7.54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230. 정보와 사회	10	9	5	1	1.88	3.52
231. 정보요구	9	11	4	1	1.88	3.73
232. 정보유통과정, 국가간	6	15	3	1	1.96	3.70
233. 정보이론	6	14	4	1	2.00	3.29
234.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10	12	2	1	1.72	4.94
235. 정보전문직	15	9		1	1.48	7.18
236. 정보정책	10	11	4		1.76	5.14
237. 개발도상국에서의 문제	5	9	8	3	2.32	0.95@
238. 산업분야에서의 문제	5	14	5	1	2.08	2.76
239. 정보정책, 과학기술	10	13	1	1	1.68	6.51
240. 정보정책, 국가별	4	15	4	2	2.24	1.48@
241. 정보정책, 국제	6	13	4	2	2.12	2.29
242. 정보처리 규격	12	8	3	1	1.68	4.23
243. 정보처리용 프로그램 언어	10	5	8	2	2.12	1.88@
244. 정보학	19	5	1		1.24	12.12
245. 도서관학과 정보학	18	5	2		1.40	8.46
246. 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	18	5	2		1.40	8.46
247. 미래의 정보학	14	10	1		1.48	8.64
248. 원리와 이론	14	8	2	1	1.60	5.49
249. 역사	4	12	7	2	2.28	1.31@
250. 전문직의 지적 기반으로서	8	15	2		1.76	6.17
251. 전산기와 정보학	13	9	3		1.60	6.34
252. 종이를 쓰지 않는 사회	2	18	4	1	2.16	2.74
253. 주제분석법	13	8	2	1	1.56	5.29
254. 지프의 법칙 (Zipf's Law)	2	12	7	3	2.36	0.72@
255. 초록	19	5	1		1.28	11.30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256. 미래의 초록	11	9	4		1.64	5.20
257. 분야별(예 : 화학초록) 고찰	8	11	6		1.92	3.82
258. 수록범위	12	11	2		1.60	6.92
259. 이용습관	6	13	5	1	2.04	2.91
260. 작성법	13	9	3		1.60	6.34
261. 종류	11	9	5		1.76	4.74
262. 판매	3	9	9	4	2.56	-0.33@
263. 초록법, 자동	12	11	2		1.64	6.72
264. 최신정보주지	19	6			1.24	14.32
265. 비용대 이익 분석	7	10	8		2.04	2.91
266. 소프트웨어 패키지	6	13	6		2.00	3.52
267. 전산기의 이용	10	13	2		1.68	6.51
268. 최신정보주지 매체	10	12	2		1.60	6.21
269. 효과 평가법	6	12	5	1	1.96	2.97
270. 축차간행물	16	7	2		1.44	8.15
271. 출판	4	13	7	1	2.20	1.97
272. 역사	2	4	17	2	2.76	1.87@
273. 전산기의 이용	5	15	5		2.00	3.85
274. 출판, 재래식	2	6	16		2.48	0.12@
275. 출판, 전자식	6	11	6	1	2.00	2.69
276. 출판시스템, 일차문헌	4	11	8		2.08	2.06
277. 커뮤니케이션	10	12	3		1.72	5.74
278. 간접경로	1	17	4	2	2.20	1.79@
279. 직접경로	2	15	5	2	2.20	1.69@
280. 일반모형	3	15	5	2	2.24	1.67@
281. 학술잡지기사가 이루는 네트워크	8	15	2		1.76	6.17

교수세목	중요도				평균값	Z 값
	1	2	3	4		
282. 학술적 커뮤니케이션	9	12	3	1	1.84	4.13
283. 커뮤니케이션, 분야별	3	15	6	1	2.20	2.11
284. 키워드색인법	17	8			1.32	12.29
285. 탐색기법	13	10	2		1.56	7.23
286. 탐색모형, 불리언 탐색모형이 아닌	6	14	5		1.96	3.97
287. 탐색, 온라인	18	6	1		1.32	10.54
288. 만족도	6	13	6		2.00	3.52
289. 심리적 측면	2	14	9		2.28	1.80@
290. 이용자	8	13	4		1.84	4.78
291.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	5	17	3		1.92	5.09
292. 정보의 손실	3	17	5		2.08	3.68
293. 클러스터 분석	1	18	4	1	2.12	2.55
294. 탐색결과에의 정확률	10	11	4		1.76	5.14
295. 탐색습관	4	13	8		2.16	2.46
296.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	14	5	1	2.08	2.76
297. 탐색유형	4	16	5		2.04	3.77
298. 탐색, 분야별 온라인	11	11	3		1.68	5.94
299.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책	7	7	8	3	2.28	1.08@
300. 화일(file)	13	10	2		1.56	7.23
301. 구조	9	14	2		1.72	6.39
302. 유지법	4	16	5		2.04	3.77
303. 작성법	8	16	1		1.76	7.12
304. 평가법	6	15	4		1.92	4.53